

자녀와 함께 문화나들이

박물관서 만나는 불교

몇십 년만의 한과 속에 겨울방학도 거의 끝나간다. 부모나 자녀 모두 이번 방학에 무얼 했는가 생각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추위에 떠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현장학습도 할 수 있는 박물관 구경은 어떨까.

특히 불교문화재 중에는 팔만대장경이나 석굴암 등 우리 나라를 대표 하는 우수한 문화재들이 많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 불교 문화에 대한 인공도 키울 수 있는 특색있는 박물관과 기획전을 찾아보자.

불교유물 6천여점 전시

고인쇄·전적자료 집합

▲목아보박물관
독조각장 박진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관장이 오랫동안 수집해 온 소장품과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다. 여러 형태의 불상에서부터 스님들의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관련된 6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묘법연화경> 등 보물로 지정된 3권의 경전, 현대적 감각을 살린 야외 조각 공원의 불상 등이 눈길을 끈다. 전시관 한 쪽에서는 불상 제작과정을 담은 비디오도 틀어 준다. 031)885-9952~4

▲경북대 박물관 고인쇄유물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활자로 찍은 자비도량형법집해를 비롯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고인쇄 및 전적자료 150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히 대장경 관련 유물이 많다. 고려시대에 간행된 '합부금광명경'은 본문 옆에 구결이 달려 있어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을 더듬어 볼 수 있고,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펴낸 '반야바라밀다경소'도 인쇄대비의 발문이 적혀 있어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 경북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0일까지 열린다. 053)950-6536

인쇄물 발달과정 재현

▲청주 고인쇄박물관
충북 청주시 옛 흥덕사 터에 자리잡았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고려 1377)을 찍어낸 사찰. 절터 발굴이 나온 고려시대 유물과 고서화, 고서적 등 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작년 6월 증축하면서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상실도 갖췄다.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인형으로 재현해서 보여 주는데, 관객이 다가서면 밀랍인형들이 움직이게 말하는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043)269-0556

석탑·석등 등 1만여점

▲용인옛돌박물관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연 세종 돌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인쇄술 발달 과정을 인형으로 재현해 보여준다

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돌 박물관이다. 웅장한 숲으로 둘러싸인 5천여 평의 공간에 한국불교와 돌, 생활 속의 돌, 민속신앙의 돌 등 10개 주제로 나눠 1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예배와 기원의 대상이 된 석탑 석불과 중생의 마음에 한줄기 빛을 비추고자 발허우었던 석등, 고승의 사리를 안장한 부도 악귀를 제압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 등 불교유물과 옛 생활도구였던 구유, 연자방아, 맷돌, 다음이돌, 돌화덕 등도 볼 수 있다. 031)321-7001

대방광불 화엄경주본

▲한솔 종이 박물관

종이로 만든 각종 불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종이 우산이나 종이 신, 바느질 그릇, 과자 담는 그릇에서 밀짚빛 장판, 병풍, 조족등, 배개 등 각종 세간 살이에 종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보 277호 대방광불 화엄경 주본과 경제 정선이 그린 부채도 있다. 3월까지 열리는 '아시아의 종이 인형전'도 볼만하다. 063)210-8101~3 권형진 기자 (jny@buddhania.com)

5백회 맞는 BBS '거룩한 만남'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든다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이 2월 9일 5백 회를 맞는다. 신채 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눈물 어린 사연들을 소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거룩한 만남' PD 한지은은 10년 동안 총 5백 세대에 25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보시행을 펼쳐왔다. 이번 선행이 인정을 한국방송대 상을 2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알뜰 중독자인 남편 뒷바라지에 힘겨운 삶을 살다 그 충격으로 실명된 김현순씨(392호)는 이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

아 공명을 되찾았다. 또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진영화씨(373호)에게는 따뜻한 보급 자리를 얻어 주기도 했다. 청취자들의 후원 열정도 대단했다. 5천 원, 1만 원 등 돈을 보내 주는 청취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갔다며 직접 방송국으로 쌀과 김장 김치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2월 9일 오전 9시 5분부터 85분간 방송되는 5백 회 특집 공개방송은 김수현 추기경, 고건 서울시장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축하메

시지를 비롯해 그 동안 수혜자들의 사연 소개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불교방송은 3일 오후 3시부터 정동아트센터에서 거룩한 만남 5백 회 특집 행사 및 공개방송을 마련한다. 김병조씨(방송인)와 도현 스님(거룩한 만남 진행자)이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는 대동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격려사, 사랑의 메시지 낭송, 영상 다큐멘터리 '거룩한 만남 어제의 오늘' 방영, 가수 김종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중국에 김교각 스님 시비 건립

신라 왕자 출신으로 구화산을 중국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지장도량으로 일군 김교각 스님을 기리는 시비가 건립된다. 한국차문화협회(회장 이귀례)는 17일 중국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지장보살의 용현으로 추앙받고 있는 스님의 자애를 통한 수행의 모습을 기리기 위한 다시비(茶詩碑)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비는 스님의 육신이 동진불로 모셔져 있는 중국 안후이(安徽省) 구화산 육신보전 앞에 세워지게 된다. 차문화협회 김해만 사무처장은 "구화산의 특산물인 금지차는 스님이 신라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차를 사랑했던 분"이라 다시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의 형상

새아침 그림 덕담

28일까지 가나아트센터 '세화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중견작가들이 새해를 맞아 각자의 바람을 그림에 담았다. 2001 회망창출발-세화전이다.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세화를 주제로 한 전시다. 세화는 조선조 궁중에서 시작돼 민간에 널리 퍼진 생활미술의 한 형태로 다복, 평안, 장수 등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다. 새해에 그림으로 덕담을 나누는 일종의 '덕담화'인 셈이다. 전통 고미술 분야에서 세화의 의미를 지닌 작품들과 함께 현역 중견 작가들이 새해를 맞아 각자의 바람과 덕담을 담은 현대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세화-고미술'에는 십장생도 병풍, 핵거리 병풍, 까치호랑이 그림, 부처 등이 출품됐다. '세화-회망'은 이만익, 임옥순, 고명훈, 김호석, 박창돈 박항 등 25명의 작가들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세화를 내놨다. 작가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와 양식에 새롭게 담아낸 세화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다. 02)3217-0233 권형진 기자



○이달종 작 '제주생활속에서 중도' (장지 위에 아크릴, 56.5x50.5cm)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앞산이 눈에 하얗게 덮여 있다. 때서운 겨울바람에 코끝이 찡하다. 한강도 풍동 얽어붙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추위라고 한다. 찬바람을 맞다 보니 문득 지난 가을 생각이 난다. 시내 서점에 들렀더니 드라마 '가을동화'가 소설이 되어 나와 있다. 책의 곁장에 쓰여있는 카피-너를 사랑하노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세상 모든 사랑의 이름으로-를 읽으니,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지만 언제나 밝고 명랑한 성격의 여주인공 '은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순간 '은서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소설 '가을동화'

은서는 누구인가 부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먼저, 작가가 처음 작품을 구상했을 때 머리 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촬영이 진행되면서 배우가 연기한 극중 인물이 생긴다. 한편 드라마가 끝난 후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여주인공의 이미지가 있다. 셋은 한 인물을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르다. 작가가 구상한 인물은 개념만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현실화 되면, 시청자들은 그 배우와 극중 인물을 동일시하여 받아들인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더라도, 비련의 여주인공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시청자들 각자의 마음속에 상당 기간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드라마 속의 한 인물이 사실은 '표현하고 싶은 표현된, 장면으로 남은' 세 인물로 구성된다. 사실은 '부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나라에는 삼신불(三身佛) 사상에 따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찬백역화신 석가모니불,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삼존불을 모신 법당이 많다.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진리를 인격화한 법신(法身), 중생의 모습으로 출현한 화신(化身), 수행의 과보로써 이루어지는 보신(報身)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은서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은 '부처님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진리 자체인 법신은, 말하자면, 작가의 머리 속에 이상으로 존재하는 인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화신은 배우의 연기로 표현되는 극중 인물에 해당된다. 또한 지극한 바라밀의 수행과 서원이 완성되어 그 과보로써 이루어진 아미타불 같은 보신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은 여주인공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드라마 속 인물과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최종적으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누구인가? 나 또한 법신, 화신, 보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부모미생전의 '나'가 법신이고,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나'는 화신이며, 금생의 업의 결과로 내생에 다시 태어날 '나'가 보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를 객체화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승장에 끌려 다니는 신세'에서 벗어나 참나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학평론가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범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 주문시 전구가격
기존은 2주전 주문 (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단 74-20

-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강원,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탕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손을 붙여놓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외 우수성 카다모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대표 이상식 합장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향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